

## 이피: 내가 죽기 전

아드리안 조지,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전시 총괄 디렉터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의 딸이며 예술가인 이피가 자신의 작업방식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 사려 깊고 서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작가는 아마도 꽤 오랫동안 글쓰기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책을 쓰고 있다. 그녀가 수년에 걸쳐 힘들게 만들어온 새롭고 특별한 조각 생명체에 대한 삽화가 포함된 현장 가이드이다. 작가의 발명품이 동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첨부된 책은 일종의 동물 우화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출판물은 결국 메이저 자연사 박물관의 전체 전시장을 차지하게 될 대규모 프로젝트로 성장할 거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일 것이다. 작가가 보여준 야망의 크기가 인상적인만큼, 그녀 역시 매우 확신에 차 있다.

이피의 작업방식은 다양하다. 작가의 초기 퍼포먼스/설치 작업은 대담하고 날것이며 극도로 연극적이며 70년대 지나 파네(Gina Pane), 1990년대 론 아티(Ron Athey) 및 프랑코 B.(Franko B.)와 같은 아티스트의 본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공연의 메아리를 담고 있다. 이들 예술가들은 범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작품은 아브젝트(object)로 정의되었다. 이는 프랑스 정신 분석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sup>1</sup> 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피의 작업에서 아브젝트는 현존하며, 2005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인종 차별과 성희롱을 모두 경험한 작가 자신의 신체성에 대한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자각에 의해 분명히 촉발되었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내 몸에 대해 몰랐다...[나중에] 내 피부는 감옥 같았다, 나를 위한.”<sup>2</sup>

그녀는 오징어/오징어 피부로 작업을 시작했다. 오징어는 한국에서 흔한 음식이기 때문에 문화적 언급이 분명하지만, 한국어 '오징어'는 매력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피는 오징어 가죽으로 가죽의 조각품을 만들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썩고 악취가 났다. 그래서 작가는 그 냄새나는 것들을 버렸다. 이와 같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그녀의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작가는 소리에 예민해져 오랫동안 일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작가는 카타르시스의 한 형태로 보석 장식 여성 모형이 침대에 누워 있는 설치물을 만든다. 그리고 누워있는 여성 조각의 가슴을 열면 천장에 연결해 부착할 수 있는 파란색 끈을 발견하게 한다.

작가의 모호한 구상 조각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미술 아카데미에서 피부 없이

---

<sup>1</sup>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아브젝시옹 에세이>,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sup>2</sup> 2023년 6월23일 작가와 줌 미팅

묘사한 인간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 에코르세<sup>3</sup>를 떠올리게 한다. 더 무시무시한 예는 모델(또는 사체)이 자신의 피부를 옷처럼 벗으며 내부를 드러내는 포즈를 취하는 것이다. 이피의 작품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매혹적인 장식을 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묘사의 디테일은 관객을 유혹해 일종의 시각적 폭식으로 이끈다. 눈을 떼기가 어렵다… 작가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관객에게 일종의 폭력적인 공격을 가하는 작업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도전적인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은 수동적이며, 그저 펼쳐지는 액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리 강렬해도 그 이미지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그녀의 조각은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그 결과 관객은 자기 스스로의 관음증적 의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혹은 멀어지지 않거나 2가지 선택 중 어느 하나를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나의 조각품을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다. 샤머니즘 의식. 나의 조각품들은 맥락을 바꾸어 보는 사람이 변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sup>4</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혹은 그렇게 보이는 작가의 최근 회화작품은 스님의 공부에서 영감을 받아 서인지 차분하고 명상적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모티프는 우리의 눈에 만트라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녀가 제시하는 모티프는 더 깊고 아마도 더 어두운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LCGC>라는 제목의 2022년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각각 두 쌍의 가위를 들고 있다. 서양의 상징주의에서 가위는 정신과 생명을 단절시키거나 분리하려는 행위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정신과 물질의 통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같은 모티브를 중복시키는 행위는 삶의 비본질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즉 문자 그대로 또는 은유적으로 정화를 암시할 수 있다.

이것은 이피의 삶과 작업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성찰의 순간, 큰 야망과 큰 결심의 순간이다. 그녀는 강력하고 의미 깊은 예술 작품을 만들 각오가 되었다.

“매일 드로잉으로 시작한다. 수백 개가 있다…모든 단일 조각품은 수천 개의 작은 조각품으로 만들어진다.…나는 그것들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sup>5</sup>

---

<sup>3</sup> 프랑스어로 “écorché.” 프랑스 미술학교의 학생들이 그림이나 에칭을 할 때 먼저 뼈와 근육을 그리는 것에서 나온 말

<sup>4</sup> 2023년 6월23일 작가와 줌 미팅

<sup>5</sup> 2023년 6월23일 작가와 줌 미팅